

■ (언론 동향) 2022.7.19.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내년에도 지속해야”

-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세 지속
- 비료업계-농민 고통 불보듯
- 기재부 지원예산 수용 목소리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에 농민이 구입하는 무기질비료의 지원예산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의 결정 요인인 원자재(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를 비롯해 국제 유가, 선박운임 모두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비료 구입비용이 소비자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무기질비료는 올해 판매가격이 지난 2020~2021년 대비 두 배 치솟았다. 1포대(20kg)에 9150~1만600원이었던 요소는 2만8900원(1~6월), 복합비료(21-17-17)는 1만900~1만2400원에서 2만6300원, 맞춤 비료 16호는 9000~1만550원에서 2만1600원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수직 상승한 것이다. 그나마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올해 인상된 비료가격의 80%인 4800억원 규모로 지원해 당장 농가들의 실제 구입부담은 대폭 상쇄된 상황이다.

그러나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중국의 비료 수출허가 강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판매가격도 쉽게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청 통관자료의 비료 2021년과 2022년 2분기의 원자재 수입가격 변화를 보면 1톤당 요소 445달러에서 894달러, 인산이암모늄 552달러에서 944달러, 염화칼륨 317달러에서 678달러 등으로 상승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비료협회는 “세계 각국의 식량과 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57건으로 2007~2008년 세계 식량가격 위기보다 어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의 제조원료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제조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비료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료 원자재가격 위험은 농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특히 임차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현실에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도 농업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7. 20.(수)

전북 군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비료 등 모든 농자재값이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농지 임차료를 정산하고 나면 푼돈만 남는다”며 “비료 지원마저 끊긴다면 임차한 논에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비료가격은 소비자 밥상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 분석해 보니 비료 가격이 80% 상승할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2.8%, 채소 및 과일 2.4%, 유지 0.3% 등으로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파동이 발생했던 2008년에 추경, 그리고 2009년에 본 예산으로 지원된 바 있다”며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인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정부 본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병성 기자 >